

국내 구술사 연구 동향 분석

-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

Research Trends of Oral History in Korea: Focusing on Domestic Academic Journals

이 재 영 (Jae-Young Lee)*

정 연 경 (Yeon-Kyoung Chung)**

목 차

1. 서 론	3.1 연구 생산량 및 주요 학술지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2 연구자 및 연구 자원
1.2 연구 범위 및 방법	3.3 연구 분야 및 내용
1.3 선행연구	3.4 국제 협력
2. 구술 기록의 의의 및 역사	4. 시사점 및 결론
3. 구술사 연구 동향 분석	

<초 록>

본 연구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국내 구술사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구술사를 둘러싼 연구 지형을 파악하고 향후 구술사 연구의 방향성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구술사로 키워드 검색을 시행하여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이루어진 국내 구술사 연구 논문 총 439건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시기별로 연구 논문 생산량과 주요 학술지, 연구자 및 연구 자원, 연구 분야 및 연구 내용, 국제 협력으로 구분하여 국내 구술사 연구 동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정리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구술사, 한국, 연구 동향, 주요 학술지, 내용 분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f oral history research in Korea from 1991 to the present, and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future direction of oral history research. For these purposes, 439 research articles of domestic oral history researchers from 1991 to 2018 were retrieved by keyword search from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ystem (RISS) in Korean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 The research trends of domestic oral history were analyzed by the volume of periodical research papers, major journals, authors and research funds, research fields and research content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implications were summarized, and direction for follow-up research was provided.

Keywords: Oral history, Korea, research trends, major journals, content analysis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전공 석사과정(jaeyoung.lee85@gmail.com)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ykchung@ewha.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8년 7월 19일 ■ 초심사일: 2018년 7월 30일 ■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15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3), 25-47, 2018. <<http://dx.doi.org/10.14404/JKSARM.2018.18.3.025>>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영국의 폴 톰슨은 다양한 사람들이 역사의 주체가 되면 역사는 더욱 민주적인 성격을 띤다고 하였다. 이는 국가사나 민족사가 다루지 못하는 지역적 특수성과 특정 집단의 경험, 특히 소외 계층이나 주변적인 집단의 경험을 역사의 장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과거의 목소리를 현재에 되살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역사 쓰기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구술사는 아래로부터 나오는 자료로서 일상사, 가족사 연구의 확장과 흐름을 같이 하면서 새로운 방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연구의 초점을 이동시키며 연구 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윤택림, 2010a).

지난 30년간 한국 학계에서 구술사는 일종의 결락 사료이자 사회적 기억을 재현하는 방식의 하나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역사학, 사회학, 인류학, 여성학 등과 같은 인문·사회학계에서는 구술사 방법론을 토대로 주변화된 사회적 약자들을 역사적 존재로 부상시키며 구술성이 갖는 의미를 고찰해왔다(김귀옥, 2005). 기록학계에서도 2000년대부터 구술사에 관한 논의가 진척되면서 구술 기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단순히 문헌 기록의 보조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이자 문헌 기록이 확보하지 못하는 주요 가치를 생산하는 기록으로서 구술 기록을 인식하게 되었다(최정은, 2011). 최근에는 학계 간의 통합적 논의를 진행하면서 구술사에 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구술사 연구에 대한 일반 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2000년대 초반에 생산되거나 구술채

록사업의 결과를 검토하는 연구로, 구술사 연구가 급증하기 시작한 2010년대를 포괄하는 동향 연구는 현재로서 찾아보기 어렵다. 구술사 연구가 양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누적된 연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향후 연구 전략 수립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의 구술사 동향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구술사에 관한 국내 학술지 논문이 생산되기 시작한 1991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국내 구술사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구술사를 둘러싼 연구 지형을 파악하고 향후 구술사 연구의 방향성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8년간 생산된 구술사 관련 학술 논문들에 대해 계량적 분석과 내용 분석을 시도하였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구술사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에서 '구술사', '구술생애사' 또는 '구술증언' 등의 키워드 검색을 시행하였다. DBpia는 구술사와 관련한 일부 학회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국내 학술지 논문에 대한 종합적인 검색이 가능한 국내 학술정보유통서비스 포털인 RISS를 선택하였다. 검색 결과, 1991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 학술지에서 구술 관련한 논문으로 624건이 검색되었으며 이중 서평, 녹취문, 에세이, 토론문, 중복등록문을 제외한 총 439건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구시기를 구술사에 대한 국내 학술지 논문이 생산되기 시작한 1991년부터 2003년

까지를 1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술채록사업이 본격화되어 결과물이 도출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를 2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2기의 경우, 각 정부출연연구기관별 구술채록사업 기간이 상이하나 가장 많은 구술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의 구술 자료 수집본 목록이 생성된 연도인 2004년을 기점으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논문 생산량과 주요 학술지, 연구자 및 연구 재원, 연구 분야 및 연구 내용, 국제 협력으로 나누어 국내 구술사 연구 동향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1.3 선행연구

본 연구는 국내 구술사 연구에 한하여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크게 구술사 연구 일반 동향과 세부 학문·주제 분야의 연구 동향 그리고 구술 기록의 수집과 보존, 활용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구술사 연구의 일반 동향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함한희(2000)는 문화연구와 관련한 구술사에 관한 논의로서 구술사 연구의 성과를 간략히 검토하고 문화 연구에서 구술사의 유용성을 밝혔으며, 이용기(2002)는 1990년대 현대사 회사 연구에 있어 '구술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어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민족문화연구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한국현대사와 관련된 단체에서 발간한 구술채록집의 텍스트를 검토하여 구술사의 가치

를 평가하였다. 김귀옥(2006)은 구술사 방법론이 다양하게 동원되고 주목받는 이유를 한국의 특수한 사회적 맥락으로 접근하면서 한국 구술사 연구를 연구주체별 및 목적에 따른 시기별로 구분하여 세부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용기(2009)는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구술사의 연구 동향을 조명하여 한국 구술사가 걸어온 발자취를 구술사의 태동, 방법론으로서의 구술사, 구술 채록의 확대·심화되는 활성화 단계로 전개하고 역사학과 구술사의 관계성을 고찰하였다.

한편 함한희(2010)는 『구술사연구』의 창간호에서 기존의 국내 구술사 연구가 사회 운동, 대항 담론, 기억의 방식 및 정체성 정치 그리고 서사 전략에 주목하였음을 밝히며 향후 디지털 환경이 구술사 발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허영란(2013)은 구술사가 대안적 역사쓰기의 실천적 도구라는 입장에서 국내 구술사 현황과 특징들을 개괄함으로써 방법론적으로 구술사가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사쓰기의 가능성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구술사를 기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수집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강숙희(2013)는 구술사 관련 국내 학위논문 261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 대상의 편향성을 비판하고, 새로운 연구대상으로서의 고령화 시대에 부합하는 노인 대상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윤택림(2015)은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채록사업의 연구 프로젝트 결과물을 검토하여, 형식적으로 8개의 대주제로 재분류하고 내용적으로는 5개의 대주제로 구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의 구술채록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요구하였다. 정혜경(2015)은 국내 구술사 연구를 구술채록 결과물과 구술사 연구로 대별하고 연구 현황을 학계별로 구분하였으며, 국내 구술사 연구 동향의 특징을 학계 환경에 따른 변화라는 측면에서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김귀옥(2016)은 한국 구술사 연구가 1980년대 비학술적인 맥락에서 탄생하여 현대사 연구와 조응하며 발전해 온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구술사가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고찰하고 향후 구술사아카이브의 구축과 대학 정규과정으로서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신갑과 이상직(2017)은 생애사 시간표를 활용하여 입학이나 입사, 결혼과 같은 사건에 대한 생애 이력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생애사 연구의 방식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321편을 수집하고, 정량적 추이를 바탕으로 학술 분야와 연구 대상을 분석하여 생애사 연구의 동향을 개관하였다.

세부 학문·주제 분야의 구술사 연구 동향은 크게 역사학, 전쟁사, 의학사, 기록학계, 여성사, 해외구술사로 구분된다. 역사학과 관련하여 윤택림(2016)은 구술성을 대한 역사학자들의 이해 부족, 주관성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어려움, 역사와 기억의 관계 설정이라는 세 영역으로 구술사와 역사학 간의 긴장관계를 집중 조명하면서 2000년 이후 역사학자들이 생산한 구술사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그 성과들을 분석하였다. 전쟁과 관련하여 염미경(2001)은 구술사 연구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서구의

국가들에서 구술사의 발전 과정과 전쟁에 대한 구술사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왜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연구하는데 있어 구술사적 접근이 필요하며 어떠한 내용의 연구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김태우(2015)는 1950년부터 2015년까지의 한국전쟁 관련 연구 동향을 기술하면서, 구술사적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 현황을 정리하여 구술사가 그간 한국사회에서 금지되어 온 민간인 학살의 실체를 규명하는 동시에 한국전쟁 사회사의 다양한 주제 연구가 생산되는데 기여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의학사와 관련해서 신규환(2013)은 한국의학사 연구에서 구술사 연구 현황을 구술자료의 수집과 자료집 출간, 의학 인물사 연구, 비주류 의료인 및 의약업자의 구술사, 환자 구술사와 역사적 트라우마의 재현이라는 범주로 나누어 연구 동향을 검토하였다.

최정은(2012)은 기록학계의 주요 연구 동향이 대부분 물리적, 기록적 지원이라는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록학계가 구술사를 학문적, 이론적 접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구술사가 제공하는 맥락 정보는 기록학에서 추구하는 맥락 확보의 가치를 통해 현실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과 기록의 맥락을 복원시키는 차원에서 아키비스트가 구술 기록의 생산단계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사에 관한 구술사 연구로 이성숙(2006)은 서구의 여성구술사 현황을 검토하면서 기억과 구술텍스트 간의 관계성과 젠더구술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윤택림(2010b)은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되어온 여성구술생애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여성 구술생애

사의 이론적 쟁점들과 방법론적인 쟁점들을 논의하면서 향후 여성 구술생애사의 연구 방향을 모색하였다. 해외 구술사에 관한 연구로는 일본의 구술사 연구 동향을 분석한 김용의(2002)와 송연옥(2015), 미국의 구술사 연구 동향을 검토한 김봉중(2001), 인도의 구술사 연구 동향을 분석한 김경학(2001)이 있다. 그리고 박기동, 강중학(2011)은 중국 구술사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송충기(2013)는 독일 구술사의 전개 과정을, 증숙민(2015)은 대만의 구술사 연구 동향을 연구하였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구술사가 갖는 특징에 따른 시론적인 성격을 규명하거나 학문적 관점에 기대어 구술사를 분석하였는데, 아직까지 연구 주제로서의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내 구술사 연구 동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한 연구는 많지 않다.

한편 구술 기록의 수집, 보존 활용에 관한 연구로 선영란 외(2006)는 구술사에 관한 선행 연구, 구술 사료의 관리방법론, 분류 체계와 구술 사료의 기술 요소(안)로 나누어 구술 기록의 기록학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권미현(2007)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소장 구술 자료를 중심으로 구술 자료의 관리와 활용을 논하였고, 이정연(2009)은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메타데이터의 표준 요소 개발을 하였으며, 김명훈(2010)은 디지털 구술 기록의 생산 및 정리, 보존에 관해 각각의 절차를 제시하였다. 조용성(2010)은 구술기록만을 위한 새로운 수집 정책과 구성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정연, 이정연, 유중덕, 이종윤(2011)은 여성구술생애기록물의 맥락을 표현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구조화를 제안하였다. 김은영과 강규형(2012)은 구술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논리적인 정리방법에 기록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국내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리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김명훈과 한지혜(2013)는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여 구술 기록 온라인 서비스 방안을 수립하였다. 최윤경과 정연경(2014)은 한국근대여성구술기록물의 효율적인 주제 접근을 위해 시소러스를 개발하였으며 이후, 정연경과 최윤경(2017)은 여성구술생애사의 구술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계획부터 실제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과 함께 국내외 선진 사례를 소개하여 다양한 구술 아카이브의 구축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2. 구술 기록의 의의 및 역사

구술 기록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증거 및 정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당대 사회상 및 집단 기억을 전승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문헌 연구의 단순한 보조 자료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적인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문헌 자료가 거의 없고 남아있는 자료마저 기관의 입장에서 서술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의 다양한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초점을 두고 시대의 변화와 맥락을 찾아내고 기록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역사적 경험을 드러내는데 구술사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구술 기록은 구술성, 주관성, 공동 작업이라는 특성을 갖고 구술자의 삶과 경험, 기억을 담은 유일하고도 중요한 자료로 세대 간, 집단 간의 이해와 소통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구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문화 콘텐츠 자료가 된다(배은희, 2018).

한국에서 구술 기록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윤택립, 2012). 1980년대까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분단, 냉전, 독재, 반공으로 얽혀져 있어 민중이나 여성, 사회적 소수자, 지방의 기억은 국가 기록에서 배제되어 왔다. 하지만 군사 독재와 급격한 경제 개발이 가져온 사회적 모순이 표출되고, 억압된 과거사에 대한 규명 요구가 반정부 운동으로 시작되면서 문헌 기록의 부재에 따른 구술 증언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로써 구술사는 민중을 발견하고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운동이 되었다.

1980년대는 군사정권에 대한 반정부 운동이 절정을 이루고 민주화의 길이 시작된 시기였다. 출판사 '뿌리 깊은 나무'는 역사학에서 배제되었던 민중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인터뷰하여 처음 민중자서전을 출간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출간된 『역사비평』의 현대사 증언시리즈는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 좌익 활동에 대한 구술 증언을 수집하여 현대사의 이면을 복원하고자 하였다(윤택립, 2012). 1980년대 중반 이후 현대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기억을 회복하기 위한 구술 사업이 지식인들과 사회단체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제강점기강제동원, 제주 4·3 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 한국의 근·현대 주요 사건에 대한 구술 기록물들이 다수 생산되었다(손동유, 권용찬, 2013).

1990년대는 '문민정부,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개인과 지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주제의 구술 채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 연구자나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

이 일본군 위안부들의 구술 증언, 제주 4·3 사건에 대한 구술 증언과 같은 역사적 경험을 복원하여 과거사 진상을 규명하였다. 학계는 이러한 구술 기록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서구 구술사 이론 소개, 역사인류학자들의 구술사 사례 연구, 구술사와 생애사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논의를 정리해서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만 해도 구술사 연구방법론을 이용한 학위논문은 매우 드물었으며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김성례(1989), 윤택립(1992), 유철인(1993), 최경숙(1995), 김귀옥(1998) 등의 박사학위논문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현대사 진실 규명을 위한 구술사 연구가 확대되고 근·현대 주요 사건에 대한 구술 기록이 다수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한 성적 폭력과 착취에 대한 문헌 기록의 부재로 군위안부들의 구술 증언을 수집하였고, 제주 4·3 연구소에서는 제주 4·3 사건 구술 증언의 수집을 통하여 문헌 기록으로 복원될 수 없었던 역사적 경험을 복원함으로써 과거사 진상을 규명하였다. 이처럼 시민단체나 일부 연구자들은 왜곡 또는 망각된 사실이나 피해의 기억을 복원하기 위한 도구로 구술사 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김귀옥, 2014).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구술사 연구가 발전하는 배경에는 국가의 역할이 컸다. 구술기록 수집은 개인 연구자나 지방 단체에서 정부 기관으로 확대되었고 기관 중심의 대규모 구술채록사업이 진행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은 국책연구과제로 구술사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억을 기록화하는 연구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정부에서 구술 증언 수집을 통해

대대적으로 과거사 진상 규명을 정책적으로 지원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결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최우익 학살에 관한 진실 규명, 일제하강제노동진상규명위원회의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 규명과 보상, 성공회대학교의 노동사연구소의 노동자들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구술 채록, 5·18 기념 재단의 5·18 관련 구술 채록, 국사편찬위원회의 현대사 구술 채록 연구, 국립예술자료원의 원로예술인들의 구술 채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시기 국내에서 생산된 구술사 관련 학위논문은 주로 구술 기록 수집이나 관리 방법에 관한 연구라는 특징이 있다(김귀옥, 2012).

2000년대 중반부터 기록의 관점에서 구술 기록의 의미와 관리 방법, 지역 구술 기록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주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구술 기록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 진행되었던 국내 구술 기록은 주로 근·현대사의 주요한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지역민의 기억을 통해 그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사라져가는 마을을 기록하는 지역 및 마을 구술채록 사업이 증가하면서 지역사로서의 구술사가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에는 113명의 발기인을 중심으로 한국구술사학회가 창립되었으며 구술사 연구와 관련된 학제 간 학술 연구 지원, 회원 상호간의 지적 교류 촉진, 구술사의 사회적 효용성 증대를 통해 학문적 발전과 역사의 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2010년부터 「구술사 연구」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2010년에 들어서부터는 구술 채록이 피해자 중심에서 엘리트 중심으로 이동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한국근대

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정치인과 관료를 중심으로 구술 채록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엘리트 구술도 수많은 아사가 있기 마련이므로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한국 현대사를 보완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한 6.25 전쟁 경험에 대한 구술 채록 연구,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 서울시사편찬위원회의 서울도박이 구술 채록이나 여성들의 시집살이 이야기가 있다(윤택림, 2012).

한편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이 강조되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려는 노력과 함께 지역민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지역 문화 형성의 자원이 되고 있으며, 지역 마을 구술 사업의 경우 지역 연구를 활성화시켜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도시 개발과 재생 사업에도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배은희, 2018). 최근에는 지역도박이와 이주민의 삶에 대한 구술 기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한국여성들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구술생애사 채록이 진행되고 민속학이나 구비문학과도 연계되어 연구되고 있다.

이처럼 구술사의 학문적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2000년대 중반부터는 구술 자료를 구술 기록으로 기록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고, 구술 채록을 통한 구술 기록의 생산과 함께 이를 관리·보존하기 위한 구술사아카이브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구술 기록의 사료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구술 기록 수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그동안 구술 기록 수집의 양적 증가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수집된 구술 기록의 관리와 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와 함께 구술 기록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구술 대상과 특징, 활용 가능성 등을 파악한다면, 다양한 분야의 구술 기록이 수집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단단한 토대가 될 것이다.

3. 구술사 연구 동향 분석

본 장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439편의 학술지 논문을 생산량과 주요 학술지, 연구자 및 연구 자원, 연구 분야 및 연구 내용, 국제 협력으로 나누어 국내 구술사의 연구 동향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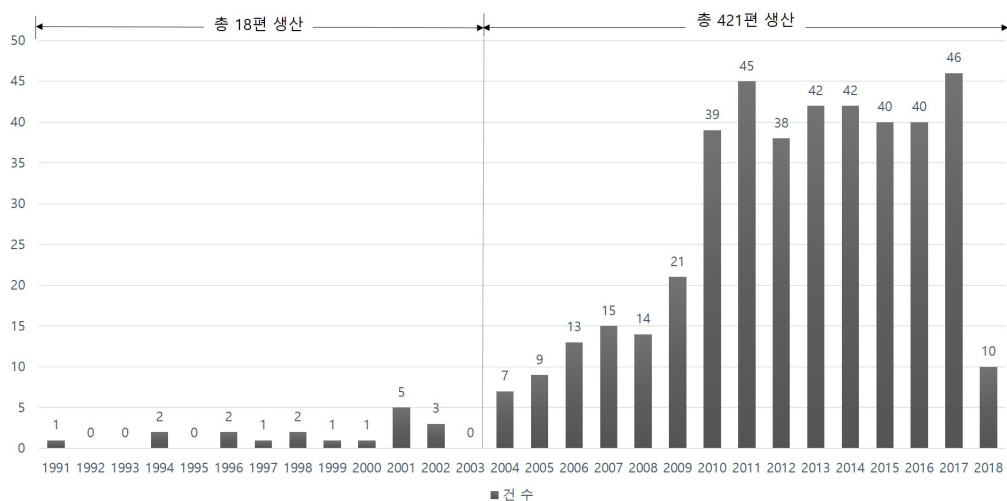
3.1 연구 생산량 및 주요 학술지

3.1.1 연구 생산량

1991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의 구술사 연구에 대한 학술지 논문의 생산 추이는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시기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국내 학술지 논문 가운데 구술사 연구가 생산되기 시작한 1991년부터 2003년까지를 1기, 기관 구술채록사업이 활성화되어 결과물이 본격적으로 도출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를 2기로 구분하였다.

발표된 논문은 시기별로 각각 18편, 421편으로 1기는 1990년대 진실 규명 작업의 일환으로 피해자 구술 증언을 채록하는 작업이 요구됨에 따라 구술사에 대한 연구가 싹트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2기는 구술기록이 증거적 가치를 넘어 사료이자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는 기록으로 부각되면서 국사편찬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대형 구술채록사업이 시행되어 그 결과물이 도출되기 시작한 시기로, 연구 생산량이 눈에 띄게 급증하였다. 또한 한국구술사학회가 2009년에 창립되고 나서 2010년부터 『구술사연구』가 발간되기 시작하면서 연구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그림 1> 국내 구술사 연구의 연도별 생산 현황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1.2 주요 학술지

연구대상인 439편의 논문은 총 195개의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전체 학술지의 95%가 4편 이하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5편 이상의 발표 논문을 보유하고 있는 학술지 17개(상위 5%)를 주요 학술지로 선정하였다(〈표 1〉 참조). 주요 학술지는 총 199편의 연구논문을 생산하였으며 이는 구술사 연구 전체 생산량의 45.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학술지별 생산량 순으로 살펴보면, 「구술사연구」, 「사회와 역사」, 「한국체육사학회지」, 「한국여성학」, 「기록학연구」, 「스포츠인류학연구」, 「여성과 역사」, 「경제와 사회」, 「역사비평」, 「지방사와 지방문화」, 「페미니즘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여성학논집」, 「인문과학연구」, 「통일인문학」, 「한국사회학」, 「한국체육학회지」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국구술사학회의 「구술사연구」는 2010년에 창간되어 전체 생산량의 19%(69편), 주요 학술지 연구생산량의 35%를 차지하였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연구를 발표한 한국사회사학회의 「사회와 역사」가 14편임을 고려할 때, 「구술사연구」가 거의 독보적인 구술사 전문 학술지임을 확인시켜준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목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공 대분류에 따르면, 주요 학술지는 인문학 분야 103편(51.8%), 복합학 분야 40편(20.1%), 사회과학 분야와 예술체육학 분야에서 각각 28편(14.1%)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그 가운데 인문학 분야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구술사가 역사학의 일부로서 인문학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복

합학 분야의 경우 복합학으로 분류되는 기록학과 여성학계의 학술지 중 절반 이상이 2000년대 이후 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다.

3.2 연구자 및 연구 자원

3.2.1 연구 주체 및 연구 자료의 출처

구술사 연구 논문은 대부분 단독 연구로 진행되었다. 전체 연구의 80%가 단독 연구로 발표되었으며 2인 이상의 연구는 20%에 불과하였다(〈표 2〉 참조). 구술사에 관한 연구 논문은 단독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것은 연구자가 대부분 직접 구술 자료 또는 구술생애사를 채록하였음을 보여주며, 이 중에는 기존에 진행된 기관 구술채록사업의 구술 자료를 원자료로 활용하거나 구술증언집과 같은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도 있었다. 구술 자료의 출처를 알 수 있는 논문에 한해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의 구술 자료의 출처 현황에서는 한 연구 내 복수의 출처를 가진 구술 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출처를 모두 포함하였다. 단, '연구자 직접 채록'은 실제 연구를 위해 다른 구술 자료의 활용 없이 구술 채록을 단독으로 진행한 연구만 집계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자 직접 채록으로 작성된 연구는 225편, 구술이론, 구술사 연구윤리, 구술 아카이브와 관련된 연구가 106편, 이외 기관 구술채록사업 및 기타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114편이었다. 여기서 구술 이론 관련 연구를 제외하면, '연구자 직접 채록'이 66.4%, 기관 구술채록사업 및 기타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33.6%를 차지하였다.

〈표 1〉 생산량 상위 5% 주요 학술지

연도	연도																				소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학회지명(창간일(년.월)/학문분야)																													
구술사연구(2010.12/인문학)																					5	9	11	7	8	12	9	6	2
사회와 역사(1986.2/사회과학)										1				1	3	1					3	1	1			1	2		
한국체육사학회지(1996.2/예술체육학)																					1	2	2	2	4	1	1		
한국여성학(1985.1/복합학)	1														1							1	1	1	3	3	1	1	
기록학연구(2000.4/복합학)																					2	3	1	2	2	1			
스포츠인류학연구(2006.12/예술체육학)																					1	1	2	2			3		
여성과 역사(2004.12/인문학)																					1	2	1	3			1	1	1
경제와 사회(1988.12/사회과학)										1				2	2	1	1												
역사비평(1987.9/인문학)												1				1					1	1	3						
지방사와 지방문화(1998.11/인문학)																1	2	1				1	1				1	1	7
페미니즘연구(2001.11/복합학)																1		2	1			1						1	6
한국기록관리학회지(2001.3/복합학)																					1		1	1	1	2	1	6	
여성학논집(1984.12/복합학)																					2		2						5
인문과학연구(2008.6/인문학)																					1	1	1	1	1	1	1	5	
통일인문학(1976.2/인문학)																					1		1	1	1	1	1	5	
한국사회학(1964.11/사회과학)																										1	1	5	
한국체육학회지(1955.11/예술체육학)																					1		1						5
소계	1	0	0	1	0	0	0	0	1	0	1	1	0	3	3	8	8	6	7	19	22	17	21	20	19	19	17	5	199

〈표 2〉 시기별 저자 수 분포

저자 수	시기	1991-2003(1기)		2004-2018(2기)		합계	
		논문 편	%	논문 편	%	논문 편	%
단독	1	18	100.0	333	79.1	351	80.0
공동	2	0	0.0	62	14.7	62	14.1
	3	0	0.0	20	4.8	20	4.6
	4	0	0.0	4	1.0	4	0.9
	5	0	0.0	1	0.2	1	0.2
	6	0	0.0	1	0.2	1	0.2
합계		18	100.0	421	100.0	439	100.0

〈표 3〉 구술자료 출처

출처	편 수	출처	편 수
연구자 직접 채록	225	한국영상자료원	2
구술이론/윤리/구술 아카이브 연구	106	진실화해위화과거사조사위원회	2
국사편찬위원회	19	Elis Island Oral History Library	1
구술증언자료집(사례집, 보고서 등)	20	대한불교 조계종	1
예술자료원	9	대한체육회	1
서울대 여성연구원	6	부마민주항쟁 기념자료집	1
경북대 SSK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단	4	서울국제여성영화제	1
국민체육진흥공단	4	연세대 역사와공간연구소	1
울산대 인문과학연구소	4	울산 대곡박물관	1
대담자료	5	재일코리아청년연합회	1
서울시편찬위원회	3	전쟁과평화연구소	1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관	3	전태일기념사업회	1
한국학중앙연구원	3	제주4·3연구소	1
한국여성체육 100년 구술생애사	2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
국토부	2	한국교육개발원	1
화성시편찬위원회	2	한국노동연구원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	한국민속연구원	1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소	2	한국출문화연구원	1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2	한국연구재단	2
		총계	445

3.2.2 연구 재원

구술사 연구를 위한 재원은 구술사 연구에 기금을 출원한 기관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구술사 연구는 구술자가 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적 연구 용역 사업이나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등의 공적인 지원이 제공될 때 연구가 촉진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로 생성되는 구술 기록은 개인의 기억을 수집한 결과물

이지만, 지역의 집단 기억과 정체성 연구를 위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 문화 자원이 된다. 또한 향후 활용을 위해 구술의 내용을 증거하고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하므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김귀옥, 2012).

따라서 구술사 연구에서 연구 지원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술사 연

구 논문의 연구 재원의 출처를 살펴보면, 지원 없이 단독으로 연구가 진행된 건은 총 271편으로 전체의 61.7%를 차지하였다. 그나마 한국연구재단이 총 111편(25.3%)의 연구를 지원하였고, 개별 대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5.18기념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기상청, 한국언론학회, 한국학의학연구원, 한국방송학회 등이 연구 재원을 제공하였다(〈표 4〉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단독 연구에서 사사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국내에서 구술 채록 사업이 각 기관에서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사업 보고서로 제출되는 것에 그쳐 연구 논문으로 발표된 경우가 적은 것일 수 있다. 또한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기금을 직접적으로 출원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생산된 구술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연구를 지원하는 형태를 고려할 때, 재원에 대한 정의를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3.3 연구 분야 및 내용

3.3.1 연구 분야

본 연구에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관리하는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목록의 전공 대분야를 차용하였다. 대분야는 총 8개이며, 인문학, 사회과학, 복합학, 예술체육학, 자연과학, 의약학, 공학, 그리고 농수해양학으로 분류된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구술사 연구의 학문분야를 시기별로 구분하면 〈표 5〉와 같다.

구체적으로 인문학 분야가 192편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사회과학 분야가 114편으로 26.0%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주로 기록학과 여성학계로 구성되는 복합학 분야는 70편으로 15.9%, 예술체육학 분야는 55편으로 12.5%, 자연과학, 의약학, 공학 분야는 각각 10편 미만으로, 1%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연구재원 지원 현황

	본인	대학	한국연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5.18기념재단	기타*	총계
논문 편	271	37	111	1	11	2	6	439
%	61.7	8.4	25.3	0.2	2.5	0.5	1.4	100.0

* 기타: 기상청, 한국언론학회, 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학의학연구원, 한국방송학회

〈표 5〉 시기별 연구분야 빈도 분포

분야	시기	합계		비율(%)
	1991-2003(1기)	2004-2018(2기)		
인문학	7	185	192	43.7
사회과학	6	108	114	26.0
복합학	3	67	70	15.9
예술체육학	0	55	55	12.5
자연과학	2	2	4	0.9
의약학	0	3	3	0.7
공학	0	1	1	0.2
농수해양학	0	0	0	0.0
총계	18	68	439	100.0

전체적으로 연구 생산이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자연과학, 의학, 공학 분야에서는 연구가 미미하게 수행되고 있고, 농수해양 학 분야의 경우 구술사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은 향후 구술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3.3.2 연구 내용

구술사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구술사 연구 주제 분야를 21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술사 연구의 주제 분야 항목은 UCLA의 구술사연구센터(Center for Oral History Research)의 Collections Subject Areas의 19개 주제에 국내 구술사 논문의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건강(음식, 치료, 트라우마)'과 '종교(무속신앙)'를 추가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역사(구술이론, 연구윤리, 구술기록), 예술(시각, 패션, 조작, 무형문화재, 예술 일반), 어문학(작가, 음악과 무용, 영화와 연극(극장, 드라마), 경제와 경영(시장, 직업, 생활), 지역사회(이주, 이민, 실향, 민족, 집단, 마을), 교육(아동), 신문/방송/언론(광고), 전쟁(분단, 통일, 군대, 해방), 정치(정부, 정책, 외교), 과학(환경), 의학(간호학, 한의학), 기술, 사회운동(노동, 민주화), 스포츠(체육), 대학교(대학생), 도시계획(건축, 교통), 여성(가족, 결혼, 이혼, 성, 가정 폭력), 건강(음식, 치료, 트라우마), 종교(무속신앙)이다. 각각의 연구는 단일 주제로 구성되기도 하나, 대부분 복수의 주제가 혼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인경(2016)의 「여성 패럴림픽언들의 삶과 스포츠: 홀로서기와 유리벽」이라는 연구는 '여성, 스포츠, 건강'이라는 주제 항목이 유기적으

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논문의 주제와 내용에 따라 주제 항목을 복수 표기함으로써 주제별 빈도를 파악하였다.

시기별 주제 분야의 분포를 나타낸 <표 6>을 살펴보면 1기는 지역사회(28.2%), 역사(25.6%), 여성(17.9%), 경제/경영(7.7%), 전쟁(7.7%), 도시계획(5.1%), 정치(2.6%), 사회운동(2.6%), 종교(2.6%) 순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구술사 연구가 시작되는 시기로 구술사에 대한 이론적 접근, 연구 윤리, 구술 기록에 관한 시론 등 역사적 관점에서 검토한 연구가 많았다.

한편 2기는 지역사회(21.8%), 여성(16.0%), 경제/경영(8.6%), 역사(8.0%), 전쟁(7.9%), 사회운동(7.4%), 정치(5.8%), 스포츠(5.0%), 교육(4.6%), 건강(3.1%), 예술(2.5%), 종교(1.8%), 음악/무용(1.5%), 의학(1.1%), 신문/방송/언론(1.0%), 어문학(0.6%), 도시계획(0.6%), 대학교(0.3%), 기술(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4년부터 시행된 산업연수생제가 2004년 고용허가제로 변경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반영된 것이다. 즉,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사회적 화두의 등장으로 학계가 '지역사회, 이주, 이민, 실향, 디아스포라' 등 다양한 소재에 주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1개의 주제 분야 가운데 과학 분야를 제외한 모든 주제에 대해 구술사 연구가 생산되었고, 특히 예술인, 체육인, 무용인, 영화인 등 예체능계열 주제들에 대한 구술사연구의 관심이 이전보다 증대되었다(<표 6> 참조).

〈표 6〉 시기별 주제 분포

연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1기 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기 계(%)	합계(%)	
주제 분야																																
역사				1				2		1	4	2		10(25.6)	1	2	5	1	1	4	9	6	7	11	4	7	3	3		64(8.0)	74(8.8)	
예술														0(0.0)	1	1	1			1	1	5	4		2	2	1	1		20(2.5)	20(2.4)	
어문학														0(0.0)							1			1		2	1			5(0.6)	5(0.6)	
음악/무용														0(0.0)					1		2	1	1	1	2	4			12(1.5)	12(1.4)		
영화/연극														0(0.0)						1	3	2		1	4	1	2	2		17(2.1)	17(2.0)	
경제/경영					2							1		3(7.7)	3	4	1	6	3	6	11	7	5	5	3	2	5	6	2		69(8.6)	72(8.6)
지역사회			1			2	1		1	4		2		11(28.2)	3	3	9	9	3	10	17	14	16	13	21	16	19	19	2	174(21.8)	185(22.1)	
교육														0(0.0)		1			2	2	1	3	5	7	5	1	5	4	1	37(4.6)	37(4.4)	
신문/방송/인론														0(0.0)					1	1	2	3	1							8(1.0)	8(1.0)	
전쟁							1		1	1				3(7.7)	1	4	5	3	3	6	9	4	5	6	7	8	2			63(7.9)	66(7.9)	
정치									1					1(2.6)	1	2	2	1	2	5	9	4	6	4	1	6	3			46(5.8)	47(5.6)	
과학														0(0.0)																0(0.0)	0(0.0)	
의학														0(0.0)		1	1	1	1	1	1	1	3							9(1.1)	9(1.1)	
기술														0(0.0)													1			1(0.1)	1(0.1)	
사회운동										1				1(2.6)	3	5	3	6	2	1	6	6	4	4	4	3	4	6	2	59(7.4)	60(7.2)	
스포츠														0(0.0)					1	1	1	3	4	5	4	6	2	7	5	40(5.0)	40(4.8)	
대학교														0(0.0)			1						1							2(0.3)	2(0.2)	
도시계획														2(5.1)	1		1		1				2							5(0.6)	7(0.8)	
여성	1		1		2	2	1			1	1	1		7(17.9)	1	4	3	6	5	8	9	23	10	8	8	12	11	16	4	128(16.0)	135(16.1)	
건강														0(0.0)						2	3	3	5	4	5	1	2			25(3.1)	25(3.0)	
종교	1													1(2.6)	1				1	2	3	1	3	1	1	1			14(1.8)	15(1.8)		
소계	2	0	0	3	0	8	2	3	3	1	10	7	0	39(100.0)	14	21	31	39	26	44	78	97	75	75	71	65	73	75	14	798(100.0)	837(100.0)	

3.4 국제 협력

구술사는 단독 연구가 많은 편이나 그에 비해 국제 협력을 통해 진행된 연구는 8편으로 매우 적은 편이었다. 다시 말해서 국제 이주를 경험한 구술자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한 연구는 드물었다 (<표 7> 참조). 이는 아직 국내 구술사 연구의 폭과 깊이가 국제적으로 확장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협력을 통해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양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4. 시사점 및 결론

본 연구는 1991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구술사 연구 논문을 분석하여 구술사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구술사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초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구술채록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급증하였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구술사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주요 학술지 가운데 『구술사연구』가 구술사 연구에 특화되어 있으며 주요 학술지의 많은 부분이 인문학과 복합학, 사회과학과 예술체육학 분야에 속해 있었다. 저자 수로 구분하면 많은 연구가 단독 연구로 진행되었고, 구술 자료의 출처는 기존의 수집된 구술 자료를 원자료로 활용하거나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이 33.6%를 차지하였다. 구술사 연구의 재원은 한국연구재단과 개별 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이 전체의 33.7%를 차지하였다.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수행된 연구가 6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다양한 기관의 구술 사업 결과물인 구술 기록이나 구술채록집을 연구 자료로 활용한 경우가 많아 지속

<표 7> 구술사 연구 논문 중 국제 협력

연구자명	연구 주제	국제협력 기관
1 왕루이, 장주영 (2017)	중국 동창부(東昌府) 연화(年畵)의 현황조사: 동창연화박물관 현장조사 및 지역연화 전문가의 구술을 통한 고찰	동창 연화박물관
2 정계향(2016)	경계인(境界人)의 뿌리 찾기: 다카라즈카(宝塚) 재일조선인 2세의 정체성 문제를 중심으로	언론분야 재일조선인 전문가
3 권형택(2016)	한국 민주화운동을 도운 사람들: 일본지역 민주인사 구술사업 수행기	와세다대, 재일대한기독교회관, 가와사키시 후레아이관
4 손미경(2016)	재일코리안 연구에 있어서 1차 자료수집 의의와 향후 방향성: '재일코리안 가정에 잠들어 있는 역사자료 발굴 캠페인'을 중심으로	재일코리안청년연합회
5 천호준(2014)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화를 위한 사례연구	MLA위원회, LA84재단 Griffith University
6 김귀옥(2013)	냉전적 이산과 탈냉전적 공존의 전망: 교토 재일코리안의 구술을 중심으로	도시사대, 리츠메이칸대
7 한봉석(2011)	Korean American 1.5세의 독도수호운동과 한인민족주의의 변화: 워싱턴 디씨 지역을 중심으로	존스홉킨스 사이스(SAIS)의 현대독일연구소(AICSG), American University, 주미대사관 한국문화원
8 백승욱(2007)	현 시기 평가에 작용하는 중국 노동자의 문화대혁명의 기억: 다렌 시 노동자를 중심으로	베이징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적인 국가적 차원의 연구 용역 사업이나 연구 기관의 공적 비용의 투자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구술사 연구의 학문 분야는 주요 학술지가 속한 분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농수해양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구술사 연구는 현재 전무한 상태이다. 분야의 특성상 방법론의 성격이 상이할 수 있지만, 향후 구술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연구 내용은 시기별로 상이하었는데, 이는 구술사가 시대의 흐름이나 사회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지난 28년간 국내 구술사에서 주로 연구된 주제는 지역사회(22.1%), 여성(16.1%), 역사(8.8%), 경제/경영(8.6%), 전쟁(7.9%), 사회운동(7.2%), 정치(5.6%), 스포츠(4.8%), 교육(4.4%) 순이었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는 지역사회(이주, 이민, 실향, 민족, 집단, 마을)와 역사(구술이론, 연구윤리, 구술 기록)가 주된 연구 분야였다. 2004년부터 현재 까지도 여전히 지역사회(이주, 이민, 실향, 민족, 집단, 마을)가 주된 연구 분야를 차지하는 동시에 여성(가족, 결혼, 이혼, 성, 가정 폭력)이 좀 더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는 연구 분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연구가 이민이나 이주에 관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술사 연구에서 국제 협력은 매우 드물어서 향후 국제적으로 연구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구술사 연구가 지니는 다학제적 성격으로 인해 구술사 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과와 연계되어

발전되어왔고 앞으로 더 많은 협업이 필요한 연구 분야이다.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 여성학, 정치학, 노동사, 전쟁사, 디아스포라, 이주사, 가족사, 체육사, 영화사, 과학사, 기술사, 의료사, 미술사, 군대사, 방송 및 언론사에 이르기까지 구술사 연구 분야는 확장되고 있으며 구비전승 분야에서도 구술사 방법을 적극 수용하여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구술사는 학문간, 또는 학문과 다른 분야와의 융합과 통섭을 끊임 없이 시도함으로써 구술 기록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거나 회화를 형상화하는 등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구술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다양한 주체의 다양한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구술사 연구 동향에서도 좀 더 상세한 내용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연구 시기, 연구 대상, 상세 주제 분석을 통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구술사 연구 영역을 발견하고 구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술사에 관한 학술지 논문이 아닌 다른 유형의 자료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구술사 연구의 지형도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술 기록의 수집부터 정리, 보존,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술 아카이브 시스템에 대한 기록관리 측면에 관한 연구까지 함께 이루어진다면 구술사 연구의 가치를 더욱 드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숙희 (2013). 국내 학위논문을 통해서 본 생애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교육연구*, 28(1), 1-22.

- 권미현 (2007). 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 기록학연구, 16, 303-339.
- 권형택 (2016). 한국 민주화운동을 도운 사람들 - 일본지역 민주인사 구술사업 수행기. 구술사연구, 7(1), 189-225.
- 김경학 (2001). 인도 구술사 연구의 동향과 그 전망 - 인도 서브얼턴 연구를 중심으로. 인도연구, 6(2), 155-186.
- 김귀옥 (1998). 정착촌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속초 '아비마을'과 김제 '용지농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 김귀옥 (2005). 구술사 연구현황과 구술사 아카이브즈의 구축, 2005 한국기록학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143-164.
- 김귀옥 (2006). 한국 구술사 연구 현황, 쟁점과 과제. 사회와 역사, 71, 313-348.
- 김귀옥 (2012). 한국사 발전을 위한 구술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기록인(IN), 20호, 24-29.
- 김귀옥 (2013). 냉전적 이산과 탈냉전적 공존의 전망: 교토 재일코리아의 구술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99, 121-157.
- 김귀옥 (2014). 구술사 연구: 방법과 실천. 서울: 한울 아카데미.
- 김귀옥 (2016).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 구술사 연구의 탄생과 역할, 과제. 구술사연구, 7(2), 11-44.
- 김명훈 (2010). 디지털 구술기록의 생산 및 정리·보존 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7-29.
- 김명훈, 한지혜 (2013).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 수립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36, 153-193.
- 김봉중 (2001). 미국 구술사의 동향과 쟁점: 미국 역사학의 변천 과정 속에서. 역사학연구, 16, 186-216.
- 김용의 (2002). 일본 구술사 연구의 동향과 쟁점. 일본어문학, 12, 201-220.
- 김은영, 강규형 (2012). 구술기록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리방안 연구: 논리적 정리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25, 229-257.
- 김태우 (2015). 한국전쟁 연구 동향의 변화와 과제, 1950~2015. 한국사학사학보, 32, 325-364.
- 박기동, 강종학 (2011). 중국구술사의 연구동향 - 체육구술사를 중심으로. 한국체육사학회지, 16(2), 83-92.
- 배은희 (2018). 지역 구술기록의 생산과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2), 85-108.
- 백승욱 (2007). 현 시기 평가에 작용하는 중국 노동자의 문화대혁명의 기억 - 다롄 시 노동자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6, 39-69.
- 선영란, 김영경, 이수원, 김은형, 이현정, 이미영, ... 여상아 (2006). 구술기록의 기록학적 관리 방안. 서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 손동유, 권용찬 (2013). 체계적인 구술기록 생산을 위한 제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135-158.
- 손미경 (2016). 재일코리아 연구에 있어서 1차 자료수집 의의와 향후 방향성 - '재일코리아 가정에 잠들어 있는 역사자료 발굴 캠페인'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24, 129-155.

- 송연옥 (2015). 재일조선인 여성의 삶에서 본 일본 구술사 연구 현황. 구술사연구, 6(2), 197-220.
- 송충기 (2013). 경험의 역사로서 독일 구술사. 역사비평, 266-284.
- 신규환 (2013). 최근 한국의학사 연구에서 구술사 연구의 성과와 한계. 의사학, 22(2), 421-447.
- 염미경 (2001). 전쟁연구와 구술사: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 동향과 전망, 51, 219-237.
- 왕루이, 장주영 (2017). 중국 동창부(東昌府) 연화(年畵)의 현황조사 - 동창연화박물관 현장조사 및 지역연화 전문가의 구술을 통한 고찰. 한국디자인포럼, 241-252.
- 윤택림 (2010a).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서울: 아르케.
- 윤택림 (2010b). 여성은 스스로 말 할 수 있는가: 여성 구술 생애사 연구의 쟁점과 방법론적 논의. 여성학논집, 27(2), 77-111.
- 윤택림 (2012). 왜 구술사인가. 기록인(IN), 20호, 18-23.
- 윤택림 (2015). 기관구술채록의 진단과 과제: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채록사업을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6(1), 11-43.
- 윤택림 (2016). 구술사와 역사학의 어색한 관계: 그 성과와 전망. 구술사연구, 7(2), 45-84.
- 이성숙 (2006). 서구 여성구술사 현황과 쟁점. 여성과 역사, 5, 1-24.
- 이용기 (2002). 구술사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제언. 역사비평, 364-384.
- 이용기 (2009). 역사학, 구술사를 만나다. 역사와 현실, 71, 291-319.
- 이인경 (2016). 여성 패럴림픽인들의 삶과 스포츠: 홀로서기와 유리벽. 구술사연구, 7(2), 87-132.
- 이정연 (2009).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1), 163-184.
- 이정연, 이정연, 유종덕, 이종윤 (2011). 여성구술생애기록물 맥락 표현을 위한 메타데이터 구조화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0, 57-88.
- 정계향 (2016). 경계인(境界人)의 뿌리 찾기: 다카라즈카(宝塚) 재일조선인 2세의 정체성 문제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7(1), 97-136.
- 정연경, 최윤경 (2017). 구술 아카이브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홍천: 아르케.
- 정혜경 (2015). 구술사 - 기록에서 역사로. 한일민족문제연구, 28, 229-262.
- 조용성 (2010). 구술기록의 수집과 아카이브 정책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5, 233-278.
- 중숙민 (2015). 대만 구술역사의 성과 및 현황. 구술사연구, 6(2), 179-196.
- 천호준 (2014).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화를 위한 사례연구. 기록학연구, 42, 37-71.
- 최경숙 (1995). 직장암환자의 질병경험: 구술사적 접근을 통한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 최윤경, 정연경 (2014). 한국 근대 여성 구술 기록물을 통한 시소러스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1), 7-24.

- 최정은 (2011). 사회적 기억과 구술 기록화 그리고 아키비스트 기록학연구, 30, 3-55.
- 최정은 (2012). 기록학계의 구술사 연구에 관한 몇 가지 단상. 구술사연구, 3(1), 143-160.
- 한봉석 (2011). Korean American 1.5세의 독도수호운동과 한인민족주의의 변화: 워싱턴 디씨 지역을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2(2), 55-96.
- 한신갑, 이상직 (2017). 생애사 연구의 자료기반 확장: 생애사 시간표를 활용한 구술 생애사 자료의 조직 및 분석. 조사연구, 18(2), 99-136.
- 함한희 (2000). 구술사와 문화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3(1), 3-25.
- 함한희 (2010). 증언, 생활사, 구술사: 기억의 구술과 역사 4·3의 경험과 재일제주인, 그리고 한국현대사. 4·3과 역사, 9-10, 7-36.
- 허영란 (2013). 한국 구술사의 현황과 대안적 역사쓰기. 역사비평, 312-331.
- Kim, Seong Nae (1989). Chronicle of violence, ritual of mourning: Cheju shamanism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chigan, USA.
- Yoo, Chul In (1993). Life histories of two Korean women who marry American G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Illinois, USA.
- Yoon, Taek-Lim (1992). Koreans' stories about themselves: an ethnographic history of Hermit Pond Village in South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Minnesota, USA.

[법령, 웹사이트]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8937호)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검색일자: 2018. 5. 30. <http://archive.history.go.kr/>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검색일자: 2018. 5. 4.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Center for Oral History Research. 검색일자: 2018. 6. 15. <http://oralhistory.library.ucla.edu/>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ck, Seung-Wook (2007). Memory of the cultural revolution by Chinese workers. *Economy and Society*, 76, 39-69.
- Bae, Eunhee (2018). Creating and managing local oral records in Busa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8(2), 85-108.
- Cheon, Ho Jun (2014). The Case study on a documentation of mega sports even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2, 37-71.

- Cho, Young-Sung (2010). A study on the collecting policy of oral history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5, 233-278.
- Choi, Jeong-eun (2011). A study on archiving of 'social meory' and oral record: Focused on the role of archivist in the stages of oral record collecting and planning.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0, 3-55.
- Choi, Jeong-Eun (2012). Some possibilities of oral history research in archival studies. *Korean Journal of Oral History*, 3(1), 143-160.
- Choi, Kyung-Sook (1995). An ethnographic case study of an experience of a patient with rectal cancer through oral hist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Yoon Kyung & Chung, Yeon Kyoung (2014). A study on thesaurus development based on women's oral history records in moder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4(1), 7-24.
- Chung, Shuming (2015).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oral history in Taiwan. *Korean Journal of Oral History*, 6(2), 179-196.
- Chung, Yeon Kyoung & Choi, Yoon Kyung (2017).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the digital archive system for oral history, Hongcheon: Arke.
- Hahm, Hanhee (2000). Oral history in cultural studies.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33(1), 3-25.
- Hahm, Hanhee (2010). Oral evidence, life history, oral history: An oral memory and history - The experiences of Jeju 4·3, Jeju residents in Japan, and modern Korean history. *Jeju 4·3 and History*, 9-10, 7-36.
- Han, Bong-Seok (2011). The movement of 1.5 generation of Korean- Americans for the dominium of Dokdo in the Washington area. *Korean Journal of Oral History*, 2(2), 55-96.
- Han, Shin-Kap & Lee, Sang-jic (2017). Scaling up life histories: Life history calendar as a tool to repurpose oral history archive. *Survey Research*, 18(2), 99-136.
- Hur, Young-ran (2013). Current state of oral history and alternative history writing in Korea. *Critical Review of History*, 312-331.
- Jung, Gyehyang (2016). Border riders' search for their roots: Mainly of identity-related issues, the second-generation Korean residents in Takarazuka, Japan. *Korean Journal of Oral History*, 7(1), 97-136.
- Jung, Hye Kyung (2015). Oral history -From record to history-. *The Journal of Korean-Japanese National Studies*, 28, 229-262.
- Kang, Suk-Hee (2013). Overview of recent trends about life history research. *The Journal of*

- Educational Research, 28(1), 1-22.
- Kim, Bong jung (2001). Oral history in the United States in the evolution of historiography. Chonnam Historical Review, 16, 186-216.
- Kim, Eun-young & Kahng, Gyoo-hyoung (2012). A study on oral history arrangement methods for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Focusing on logical arrangement, The Asian Culture Studies, 25, 229-257.
- Kim, Gwi-Ok (1998). The identities of Wollam'ins in resettlement villages of South Korea: The cases of "Abai village" at Sokcho and "Yongji farmland" at Kimj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Gwi-Ok (2005). Oral history and construction of oral history archives. 2005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symposium, 143-164.
- Kim, Gwi-Ok (2006). The situation of oral history research in Korea, current issues and topics. Society and History, 71, 313-348.
- Kim, Gwi-Ok (2012). Issues and tasks of oral history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history. Record(IN), 20, 24-29.
- Kim, Gwi-Ok (2013). Diaspora and coexistence during and after the cold war: A field study on Koreans in Kyoto, Japan. Society and History, 99, 121-157.
- Kim, Gwi-Ok (2014). Oral history research: Method and practice. Seoul: Hanul Academy.
- Kim, Gwi-Ok (2016). The origins, roles, and challenges of oral history in studying Korean modern history. Korean Journal of Oral History, 7(2), 11-44.
- Kim, Kyung-Hak (2001). The trend of researches and its prospects in Indian oral history: By criticizing subaltern studies. Journal of Indian Studies, 6(2), 155-186.
- Kim, Myoung-Hun & Han, Ji-Hye (2013). A study on the online service of oral history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6, 153-193.
- Kim, Myoung-Hun (2010). A study on creation, management, and preservation process of digital oral rec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0(1), 7-29.
- Kim, Tae-Woo (2015). Changes in the Korea war research trends, 1950-2015.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of Historiography, 32, 325-364.
- Kim, Yong Ui (2002). A study of trend and issue in Japanese oral history. Korean Japanese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12, 201-220.
- Kwon, Hyung-Taek (2016). People who help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 Report on democratic oral business in Japan. Korean Journal of Oral History, 7(1), 189-225.
- Kwon, Mi-Hyun (2007). Management and use of oral history archives on forced mobilization -

- Centering on oral history archives collected by the truth commission on forced mobiliz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6, 303-339.
- Lee, Inkyung (2016). Women paralympians' life and sports: Standing alone and glass wall. *Korean Journal of Oral History*, 7(2), 87-132.
- Lee, Jung Yeon, Lee, Jung Yeoun, Ryoo, Jong Duk, & Lee, Jong Yoon (2011). A study on metadata structuralization for context representation of women's oral life history.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0, 57-88.
- Lee, Jungyeoun (2009). A study on modeling metadata and developing standard elements to establish oral history archiv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6(1), 163-184.
- Lee, Sung-Sook (2006). The current methodological debates on women's oral history. *Women and History*, 5, 1-24.
- Lee, Yong-ki (2002). A sugges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place of oral history. *Critical Review of History*, 364-384.
- Lee, Yong-ki (2009). Conventional history meets oral history -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tasks for oral history, figured from a historian's perspective.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71, 291-319.
- Park, Ki-Dong & JIANG, ZHONG-XUE (2011). The trend in research of Chinese oral history - Center on the oral history of sports. *Korean Journal of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Dance*, 16(2), 83-92.
- Shin, Kyu-hwan (2013).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researches that make use of interviews for the history of medicine in Korea.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22(2), 421-447.
- Sohn, Dong You & Kwon, Yong Chan (2013). A systematic approach to producing oral rec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1), 135-158.
- Son, Migyoung (2016). The importance of the initial collection of materials and later research direction on the study of Japanese Koreans - With the reference to 'the campaign of gathering dormant historical materials in Japanese Korean households'. *Global Cultural Contents*, 24, 129-155.
- Song, Chung-Ki (2013). Oral history as 'history of experience' in Germany. *Critical Review of History*, 266-284.
- Song, Youn-Ok (2015). Japanese oral history researches from the view point of a Korean woman

- in Japan. *Korean Journal of Oral History*, 6(2), 197-220.
- Sun, Young-Ran, Kim, Yong-Kyung, Lee, Soo-Won, Kim, Eun-Hyung, Lee, Hyun-Jeoung, Lee, Mi-Young, ..., & Yeo, Sang-Ah (2006). *Archival control for oral history*. Seoul: The Research Institute for Korean Archives and Records.
- Wang Rui & Chang, Juyoung (2017). Investigation on the current situation of “Dongchangfu new year paintings” in China - Investigation on the “Dongchang new year painting museum” and local experts-.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241-252.
- Yeom, Mi Kyung (2001). War research and oral history: A new methodology for research Korean war from below. *Journal of Korean Social Trend and Perspective*, 51, 219-237.
- Yoon, Taek-Lim (2010a). *Oral history, a memorable history*, Seoul: Arke.
- Yoon, Taek-Lim (2010b). Can women speak? -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of women's oral History.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27(2), 77-111.
- Yoon, Taek-Lim (2012). Why an oral history?. *Record(IN)*, 20, 18-23.
- Yoon, Taek-Lim (2015). Diagnosing institutional oral history projects: Focused on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Korean Journal of Oral History*, 6(1), 11-43.
- Yoon, Taek-Lim (2016). Analysis on the awkward relationship between oral history and historiography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Oral History*, 7(2), 45-84.